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6191.92	↑ 코스닥	1170.04
	(-34.13)		(+7.07)
↑ 금리	3.371	↓ 환율	1460.00
	(+0.031)		(-14.60)

중동 종전 기대감
가상자산 가격 상승
비트코인 7.5만달러
04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찬물' 美 "수일 내 전투 재개될 수도"

중동 휴전시한 압박

2차 종전협상 앞두고 긴장감 고조 호르무즈 개방·핵 등 입장차 여전히
이란 국회의장 "최종논의는 멀어"



지난 12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실종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 /AP·뉴시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다시 걸어 잠근 '호르무즈 출입구'는 과연 열릴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1차 휴전도 끝나간다. 시한인 4월21일(미 동부시간) 지정 전 협상당사국 간 돌파구 도출 여부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끈다.

당사국 중 별도로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양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으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경고 성명을 내는 등 불과 하루이틀 만에 삐걱대는 모습이다.

우선 파키스탄이 중재 중인 미국-이란 간 협상은 크게 4가지의 결과 추론이 가능하다. 즉 ▲휴전 기한의 연장·2차 협상(1차는 4월 7~21일 2주간) ▲진전에 의한 종전협상(세부안 조율) 개시 ▲무기한 휴전(종전) 선언 ▲협상 결렬에 따른 전투 재개 등이다.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미국 측 요구) ▲농축우라늄 비축 포기

·이전(미국 측 요구) ▲중동지역 미군의 철수(이란 측 요구) ▲전쟁피해 전면 보상(이란 측 요구) 등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그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2척에 포격을 가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18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 공격정은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을 항행하던 유조선 1척을 공격했다. 또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1척이 공격 받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다만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AFP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19일 TV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사안은 결론을 도출했으나 다른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아직 최종 논의 단계와 거리가 멀다"며 "이견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있지만, 적군이 실수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 등에 대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는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18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틀어막았다. 미국이 이란 해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전에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 이란의 재봉쇄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돌파구가 지속해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투는 수일 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상폐 회피' 불공정거래 막는다 공시심사 강화·회계감리 확대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 "좀비기업 차단... 자본시장 신뢰 회복"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방위 감시에 나섰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등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대표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처음 공시한 대로 유상증자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했다.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금을 확충했다. B사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

다. C사는 기준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이자,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단기 시세조종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을 포함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 심사도 강화된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 유용이나 허위공시의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역시 확대된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고,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좀비기업의 시장 잔존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M-커버스토리

국내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기 수습개편

친환경 물류전환 제자리

충전기 설치 비용 등 현실적 장벽 "맞춤형 인프라 구축 전략 시급"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100만대 시대가 열렸지만 물류 현장엔 충전 인프라 문제로 대형 전기트럭 보급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전용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9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전기차 충전소 통합정보시스템 차지인포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9만9000기에 달한다. 반면 대형 트럭 전용 충전기는 수십개에 불과하다. 승용차용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보급되고 있지

만 대형 트럭 전용 시설은 볼보트럭 코리아가 전국 3곳에 26기를 구축한 것을 최초로 2024년 한국도로공사가 추풍령(360kW)과 인양, 통도사휴게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충전 용량은 승용이 완속(3~22kW), 급속(50~200kW)이며 대형 트럭의 경우 초급속(350kW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중·대형 전기트럭은 기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대형 트럭용 충전기 설치 비용이다. 대형 트럭용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고압 수전 설비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승용전기차의 몇 배에 달한다. 또 도심 인근이나 물류 거점에 대형 트럭이 진출입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대형 전기 트럭의 활성화 위해서는 승용차와 분리된 '화물차 전용 충전 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이나 물류 터미널 내에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용 스테이션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젤 등 내연기관 화물차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기엔 비용과 충전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며 "충전기 숫자를 늘리기보다 차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 홍준표, 청와대 오찬 후 총리실에 "억척 안 하셔도 된다"
- ▲ 오세훈 "대통령 혐의 지우려 사법부 조롱, 선열 통곡할 것"



- ▲ 유명하 "주호영·이진숙과 무소속 단일화는 절대 안 해"
- ▲ 국립 "조작기소 국조특위, '李' 공소취소' 퇴로 만들기 시도...검사 사지로 몰아"

- ▲ 배현진 "열흘 집 비운 가장, 돌아오면 거취 고민하길" 장동혁 직격
- ▲ 조국 "4·19 혁명 66주년, 내란 세력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 만들 것"

李, 인도·베트남 순방...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4대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 논의
AI·조선분야 등 신규 협력사업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4대그룹 총수들도 함께해, 공급망과 신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수브라마니야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에 21일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이번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도 방문의 기대 성

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

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20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함께하며 '세일즈 외교'도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

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에 함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인도)와 대한상공회의소(베트남)가 나라별 순방을 주관하며 현지 비즈니스 포럼과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있고, TV·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연구·개발(R&D) 센터까지 세웠다. 베트남에선 제조 공장 6곳과 R&D 센터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 법인에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인도 소비자들을 공략할 맞춤형 레저용 차량(RV)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법안을 상정했고, SK는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가스 발전 사업 등 에너지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jj@metroseoul.co.kr



정부 “北 도발, 한미일 연계 대비태세 유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北, 이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
청와대 안보실, 도발행위 중단 촉구
합참, 제원 분석... 감시·경계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안보실은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 7일 이후 약 4년 만이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후 11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총 네 번째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엔 10월22일과 11월7일, 올해는 1월4일과 같은 달 27일, 3월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李,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

강훈식 비서실장 “권력형 비리 예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

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 기자



IMF “올해 韓 1인당 GDP 3만7412달러”

2028년 4만달러 돌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배경으로 급성장을 이어가면서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늘어난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또 오는 2028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695달러로 전망,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를 4만2103달러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6.6% 급증한 수치다. 3년 뒤인 2029년에는 5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 폭은 올

해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61달러, 2030년 9073달러로 계산됐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2031년에는 양국 간 격차가 1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이미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만의 고성장이 이러한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의 쾌속 성장 배경과 관련, “테크업체 비중이 높아 최근 인공지능(AI)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가 부진한 양극화 성장이 지속되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를 두고는 3만5703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3만5973달러)보다 300달러 가까이 줄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군 보복 경고

>> 1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서 계속

백악관이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간 교묘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들은 다시 협력을 봉쇄하려 하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중(미동부시간 18일) 협상의 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실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킷 베스트 재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란 무장단체 레바논 헤즈볼라의 나임 카셈 지도자는 18일 이스라엘이 휴전합의 이후에도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쪽 편에서만 지키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정전 위반과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확대에도... 가격 장벽에 확산 한계

m-커버스토리

탄소저감 정책 실효성 논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3년 여간 침체된 세계 전기차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친환경 상용차 전환을 위해 '전기 상용차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서 보조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저감 정책의 실효성 등을 위해 적극적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첫 제도화... 현장은 '글썽'

중대형 전기화물차가 2026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제도적 틀은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의미와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차 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국토부 차급 기준 중형(적재 중량 1.5~5톤)과 대형(5톤 이상) 전기화물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형급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에는 최대 6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심이던 상용차 전동화 정책이 중대형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는 분명하다.

하지만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여전히 가격 구조다.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수억 원대에 이르며, 최대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구글 제미니AI 생성 이미지.

를 기준으로 보면, 5톤 적재 카고 내연기관 차량은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인 반면, 최대 보조금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3억 1000만 원을 웃돈다.

2026년 중대형도 보조금 대상 중형 4000만원·대형 6000만원 지원 수억 원대 차값에 가격 격차 여전히 실구매 이끌기엔 여전히 역부족

여기에 중앙정부 보조금 최대 60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최대 6000만원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남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물류기업 도입 증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주요 물류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내연기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을 겪은 물류 업체들은 유가 상승 등의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구

매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동화에 대한 관심과 구매 수요는 존재하지만, 현행 보조금 체계만으로는 전환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동화 투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떠안고 있는 제조사다. 타타대우는 정부의 2050 넷제로 목표에 맞춰 자체적인 2045 넷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해 중대형 전기화물차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과 시장 현실 간 괴리로 친환경차의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과징금 리스크까지 동시에 안게 됐다. 전동화 보급 정책과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며, 선제적 전환 노력이 오히려 경영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 유일하게 국내 시장에 대형 전기 트럭을 공급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도 보조금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해 대형 전기트럭 '볼보 FH 일렉트릭'을 출시했다. FH 일렉트릭은 세계 최초로 양산된 대형 전기트럭이자 글로벌 판매 1위 모델이다. 저소음·무배

출 전기구동 시스템에 최대 출력 490kW의 힘을 뿜어내 44t 운송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삼성SDI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가 투입됐는데, 1회 충전에 최대 300km를 달릴 수 있다. 볼보트럭코리아의 경우 기업과 일반 소비자 층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대형 전기트럭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가 상승에 전기트럭 관심 확대 높은 구매 부담에 도입은 제한적 제조사, 투자·규제 이중 부담 보조금 확대·규제 완화 요구

◆친환경 중대형 트럭 보조금 구조 개선 필요

수소전기트럭은 초기 시장 형성과 인프라 구축을 고려한 지원 구조가 적용되는 반면,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 비율이 적용된다. 동일한 무공해범주안에서도 기술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와 시장 진입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제도의 강제력 역시 제한적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형 화물차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제약이나 강한 페널티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적 요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정책은 제도적 틀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과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를 안고 있다.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조금이 실제 구매와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행 대당 보조금 규모로는 내연기관 화물차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최소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은 돼야 실질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페널티까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대형 화물차 전동화는 더욱 속도를 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최소한 중대형 화물차에 한해서는 전동화 전환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규제 페널티를 유예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 한, 중대형 전기화물차 전환은 본격적인 시장 단계가 아닌 제한적인 시범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정부가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점은 반가운 부분이다"면서도 "차량 대수와 지원 금액 등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는 총 1만 5000여대에 육박하는데 90%가량이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이라며 "노후 디젤 화물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승용차 100대를 대체하는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만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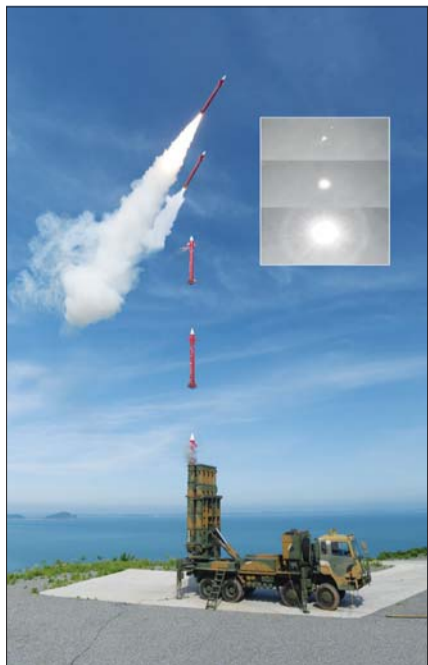


방산 4사, 호실적 지속... 중동 방위력 강화에 추가수주 기대

1분기 합산 영업익 1조2034억 전망 전년비 30% 증가, 분기 호조세 지속 폴란드·노르웨이·UAE향 납품 본격화 유럽·중동발 발주 확대 가능성 주목

국내 방산 4사가 대규모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수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이번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군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비 지출 확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203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



LIG넥스원의 천궁II 사격 이미지.

분기 실적 9241억원과 비교하면 약 30.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 기준 1조원대 영업이익이 이어

지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4사의 합산 수주 잔고는 120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향후 4~5년간 생산·납품할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확보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견조한 실적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자 2차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폴란드향 수출이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인식 확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 폭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에도 대형 해외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수주 모멘텀을 이어갔다. 노르웨이 천무 1조 3000억원, 폴란드 천무 유도탄 3차 후속 이행계약 2조 4000억원 등 1분기에만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가 확

인됐다. 여기에 스페인 K9 수출도 지난 3월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치면서 추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LIG D&A는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천궁-II를 도입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의 추가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UAE향 양산 납품이 시작되고 향후 관련 물량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는 완제기 인도 확대와 KF-21 등 주요 사업의 납품 본격화에 힘입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높은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의 수출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추가 도입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F-21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 데다 추가 수주 여건도 우호적으로 전개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각국이 방위력 강화와 군 전력 재정비,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방산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과 NATO 국가들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군비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동 역시 단순한 방공 전력 보강을 넘어 보다 폭넓은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국내 업체들의 추가 수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비트코인 7만5000달러 회복… 중동사태 불확실성은 여전

비트코인 주간가격 5.48% 올라
이더리움 5.73% ↑, 리플 7.51% ↑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2.6억달러
소규모 공습·해협 재봉쇄 등 압박
상황 변화 유의… 취약성 노출 상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란과 레바논(헤즈볼라)의 일시 휴전 합의 이후 '중동사태'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휴전 이후에도 양국 간에 충돌이 지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위험자산 성향이 짙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7만 554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월 3일 이후 2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전일과 비교해 1.9% 하락했지만, 주간 가격으로는 5.48%의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주민들이 실탄과 불꽃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축하하는 가운데, 예광탄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가격도 올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한주간 5.73% 올랐고, 시총 3위 리플(XRP)은 7.51% 상승했다. 4위 바이낸스(BNB)와 5위 솔라나(SOL)는 각각 4.69%, 3.95% 올랐다.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상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주에는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6100억달러로, 지난 2월 3일 이후 최대치다. 2월 초 스톡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정부 주도의 가상자산 매입 중단' 발언 이후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 간의 휴전에 동의하면서 '중동사태'에 출구전략이 제시

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레바논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10일간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AP통신은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레바논 대사들의 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 끝에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동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지속했다. 이슬람 시아파에 속하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친밀한 관계로, 이란은 중동 사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헤즈볼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5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과열)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57을 기록해 '중립' 수준을 나타냈다. 이달 초에는 28까지 내려 '공포'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투자 심리에 '중

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남부 레바논에 '옐로 라인'을 설정하고 소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또한 "정전 위반이 계속된다면 전투원들이 보복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도 오는 20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가격이 종전 기대감을 반영한 만큼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소의 데시슬라바 이아네바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에 있어) 7만5000달러는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가격"이라면서 "비트코인이 7만5000달러를 넘기면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랠리는 여전히 취약성에 노출돼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6·3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3곳 지방이전' 논의 재점화

지선 전까지 대상 기관 확정 후
일부 기관 우선 이전 가능성 제기
금융 수요 수도권 집중… 실효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책은행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공약으로 장기간 제시돼 온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도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이전 당시 적

용된 예외 기준을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된 뒤, 일부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먼저 논의되면서 수출입은행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전례가 반영된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선(先) 산은-후(後) 수은'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기관이 먼저 이전 대상이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형 구조라는 점에서 본점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있다. 반면 이미 영업망이 분산된 상황에서 본점 이전이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본점의 상징성'과 '실질 기능'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점 기반 영업 구조라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산은과 수은을 비교하면 정책금융 기능 측면에서 산은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 수은보다 먼저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

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기업은행은 과거부터 대구 이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에도 정지춘 공약과 맞물리며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기관을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입금 수준이 업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까지 겹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신규 청사 대신 기존 건물 활용을 지시하며 신속하게 이전을 밀

어붙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이전 역시 구체적인 확정될 경우 단기간 내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은 2024년 6월 발의 이후 진전이 없고,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 지역균형발전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이젠 AI가 해킹"... 정부, '미토스 쇼크' 대응체계 가동

과기부, 40개사와 CISO 간담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안특위 회의

앤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클로드 미토스(Mythos)'가 자율적 해킹 능력을 입증하며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들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와 주요 플랫폼·보안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들과 연쇄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가 차원의 보안 정책 재정비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3사와 플랫폼사, 정보보호 기업, 주요 기업 정보보호책임자(CISO)들을 잇달아 만나 '클로드 미토스'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미토스는 앤스로픽의 차세대 AI로 27



한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앤스로픽 웹사이트 페이지와 회사 로고. /AP·뉴스시스

년간 숨겨져 있던 오픈BSD의 버그를 단숨에 식별하고, 스스로 격리 환경을 탈출해 공격 흔적을 지우는 등 고도의 자율적 해킹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간의 개입 없이 명령 한 줄만으로 취약점 분석부터 공격 코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완수해 보안 위협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앤스로픽은 이 같은 위협성을 고려해 모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토스를 선두로 AI 해킹에 대한 위협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 15일 국내 주요 정보보호 기업 간담회와 주요 기업 40개사 CISO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 CISO, AI 보안 전문가들과 릴레이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국가 차원의 논의도 시작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안특위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앤스로픽 클라우드 미토스' 동향과 금융 분야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의 단계적 철폐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고도화가 사이버보안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이제 사람

이 아닌 AI가 새로운 해킹의 주도권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존 우리가 가진 모든 보안 정책을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보안이 AI 대전환과 AI강국 도약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보안 업계 관계자들은 '미토스 쇼크' 이전에 이미 AI 발전에 발맞춘 AI 해킹이 실제 위협으로 도래하지 오래라고 설명한다.

AI 해킹은 기존 해킹과 달리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AI 기반 해킹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 탐지하고 공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대상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해졌다.

오픈시브 사이버보안 기업 티오리 또한 백서를 통해 현재 대중적으로 공개된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피스 4.6과 오픈AI의 GPT 5.4 등 모델을 결합해 미토스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모두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티오리는 "AI가 능동적인 해킹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면서 "미토스급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해당 기술이 방어자뿐 아니라 공격자에게도 동일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해킹은 빠르게 위협성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보안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80개 이상의 공격 조직을 분석한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이버 범죄 평균 침입 시간은 29분으로 단축됐다. 가장 빠른 공격은 27초 만에 이뤄졌다. AI 기반 공격 활동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측은 "침입은 이제 신뢰된 계정, SaaS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이뤄지며 정상 활동처럼 위장된다"며 "보안 대응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생성형 AI를 활용에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갤럭시 S26 사면 웨어러블 또는 TV 또는 소형가전

하나 더!



Galaxy S26 Ultra



+ 갤럭시 버즈3 PRO 화이트 또는 삼성 무빙스타일 32형 또는 삼성 UHD TV 75형
삼성 초이스 스페셜 이상 24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36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에센스 이상 & 지니TV 에센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 시

[KT 삼성 초이스]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후 삼성 초이스 디바이스를 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 가입하고 요금제 유지할 경우 매월 디바이스 할인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24개월 유지 시 버즈3 Pro 화이트 고객 혜택가 0원에 제공 / 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 (~2026.4.30일까지) / 단, 할부 수수료 5.99% 고객 부담 별도 / 요금제 변경 · 정지 · 해지 시 잔여 할부금 정상 청구 / 법인 가입 불가
 [KT 가전구독 초이스]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 프리미엄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제 가입 후 KT 가전구독 상품을 별도 가입 시 할인 혜택 제공 / 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36개월 유지 시 무빙스타일 32형 (80.1cm) 고객 혜택가 0원에 제공 / 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에센스 이상 & 지니TV 에센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 시 삼성 UHD TV 75형 (189.3cm) 고객 혜택가 0원에 제공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 (미성년자, 외국인 정식단체, 법인 등 가입 불가) / 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 (~2026.4.30일까지) / 요금제 변경 · 정지 · 해지 시 잔여 할부금 정상 청구 /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與 수도권 재보선 공천 ‘골머리’… 송영길·김용 출마지 관건

모든 지역 전략 공천 방침 내세워 인천 계양을, 송영길·김남준 경쟁 사법리스크 김용 출마 두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당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 매끄러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수도권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경기 하남갑(민주당 추미애)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5곳이 비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지난 17일 전대진 변호사를 1호 인재영입 인사로 영입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모든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등과 1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전략공천의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지역 인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구는 경쟁이 치열한 경쟁자들이 많아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양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 중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당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도 언급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박남준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송 전 대표보다는

박 전 시장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사퇴하면, 송 전 대표가 경기 하남갑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의 하남갑 전략공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난제에 속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출마를 시

사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경기권 출마를 희망함에 따라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다만 경기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안산갑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참석했다. 사전에 합의된 동행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사실상 선거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위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민주주의, 국민 삶 지키는 핵심 체제”

대통령, 4·19혁명 기념식 참석
총 70명 유공자들에게 포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주제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며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의 군화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운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했다.

66주년을 맞은 4·19 혁명에 대해서

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며 “분연히 펼쳐 일어난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총 7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이 중 5명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펼친 윤희숙 전 의원, 박수민 의원과 오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중도 확장’ 혁신 선대위 구성

공동 선대위원장에 박수민·윤희숙 청년·장년 등 폭넓은 선거조직 구성 정책 뿐 아니라 정부 견제 필요성 강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조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오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게도 저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두 분께서 흔쾌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선거 기간에 함께 고생해 주기로 하셨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간 오 후보는 ‘혁신 선대위’를 강조하면서 당의 혁신을 촉구해왔다. 그는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설명하는 게 아마 가장 간명할 것 같다”며 “각계각층의, 청년과 중년과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대통합의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장 대표를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가 정책 경쟁을 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오만함, 그리고 독재에 대한 견제가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서 의미 있게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 후보는) 정책 경쟁만 하지는 취지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책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오만함과 폭주를 하는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저희의 충정도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마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연성 독재가 아마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정청래 “지선 승리가 곧 정부 성공”

성남 모란시장 찾아 지지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성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일을 잘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방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식도 오르고, 뉴스도 보고 싶고, 얼굴에 웃음꽃도 피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제주시사 후보(경선)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났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적 절차로 뽑힌 추미애, 김병욱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이 한 팀이고 당에서 입법적 뒷받침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원팀을 응원해주지 않았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민생을 푸는 것이 해답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선을 압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주의 현장의 상징인 모란시장은 도축장으로 가득했거나 상인들의 협조 하에 현대화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이재명식 실용정치, 실용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성과급 나오면 살게요”... 잠실·동탄·수지 등 직장인 발길

현장르포

서울·경기 ‘셔세권’

반도체 기업 역대급 성과급 기대
셔틀 노선 인근단지 매수 움직임
일부 지역 매도자 우위 시장 형성

“삼전, 하이닉스 셔틀 노선 겹치는 단지가 어딘가요?”

나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다니는 부부는 동탄역 인근 부동산을 찾아 통근 셔틀버스 정류장 위치부터 확인했다. 반도체 상승세와 더불어 성과급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출퇴근이 편리한 ‘셔세권’을 따지는 수요자가 늘었다. 반도체 기업 통근버스(셔틀버스)가 정착하는 지역을 뜻한다. 서울 잠실 일대와 경기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역세권이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된다면, 셔세권은 셔틀 노선을 따라 ‘선’ 형태로 수요가 연결될 수 있다.

◆강동·수지·동탄, 사내커플 위주 수요 꾸준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에서는 꾸준한 수요가 감지됐다. 강동구 고덕·상일동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강동구 상일동역 일대 아파트 단지.

/성채리 인턴기자

일대 공인중개사는 “요즘 집 사는 손님을 보면 SK하이닉스에 다닐 확률이 높다”며 “7~8년 전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연봉 직군이다 보니 매수 의지는 강한 편이지만, 지금은 매수가 활발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고액 성과급이 실제로 풀리는 시점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내커플 중심의 실수요도 눈에 띄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부가 함께 집을 찾는 경우가 많고,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한다”며 “송파보다 가격 부담이 낮고 아이와 살기도 좋은 곳이라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이 수익 원이라 해도 주택을 사려면 상당한 현금이 필요하니 고연차 위주로 기존에 모았던 자금이 충분한 경우 성과급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때 매수를 한다”고 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반도체 기업 셔틀버스가 서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포착됐다.

용인 수지구 성북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꾸준히 집을 보러 온다”며 “분당은 조금 낡고 강남은 비싸다 보니 대체지로 수지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다주택자 증가와 회피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가격이 눌린 매물도 있었지만, 저렴한 물건은 빠르게 소진되고 다시 상승흐

름”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동탄역 인근 역시 ‘셔세권’ 수요가 뚜렷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근무하는 부부가 와서 셔틀 노선이 겹치는 단지를 찾았다”며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따졌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 셔틀 노선이 겹치는 수지와 동탄은 실수요 비중이 높아 회전율이 빠르고, 매물 감소에 따른 희소성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셔틀이 모두 정착하는 용인 수지구 성북동 성북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 84㎡는 지난달 17억 4000만 원에 신고가를

같이 치렀다. 삼성전자·화성·수원, SK하이닉스 이전 사업장을 잇는 셔틀 3개 노선이 교차하는 동탄역반도유보라이비파크5.0 단지의 경우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성과급 활용 자금운용 변화

성과급을 활용한 자금 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SK하이닉스 사내 커플이 각각 전용 25평형대 주택을 한 채씩 매입하기도 했다”며 “당시 성과급이 약 1억 원 수준이었는데, 먼저 계약을 진행한 뒤 자금을 맞춰가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대출로 마련하고, 성과급이 나온 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도 2년 이내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하고 빠르게 상환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부 수요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한 뒤, 성과급 등을 활용해 잔금을 맞추고 있다. 전세 깬 매물을 매입해서 임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입주한다는 설명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롯데건설, 창원 용호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3967억 규모... 누적 수주 1.5조 달성
“지역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완성”

롯데건설은 약 3967억원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 용호무화과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8층, 아파트 6개 동, 총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에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공원과 최장 1km의 순환 산책로를 배치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고 등이 인접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할 수 있으며, 창원을 대표하는 용지공원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원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점,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행정·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가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아파트 재건축(4840억원)과 성동구 금호제21구역 재개발(6242억원)에 이어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5049억원을 달성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양주·청주 등 11개 단지 9258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평택·여수 등 모델하우스 5곳 오픈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8432가구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 디에트’,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트럴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

푸르지오씨엘리체’ 등에서 청약의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54-3번지 일원에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청주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청주 도심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계룡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2구역 1·2블록에 ‘엘리프성성호수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84~111㎡, 총 1165가구(1블록 546가구, 2블록 619가구) 규모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성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가 가깝다. 단지는 성성호수공원과 맞닿아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근거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하세요”

4주간 모집... GPU 지원 전형 신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오는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제공 ▲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타당성 평가의견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의 증가에 맞춰 고성능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GPU(고사양 하드웨어) 지원 전형’을 신설했다. 참여기업이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지원해 실전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는

총 25개사 내외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테스트 전형과 GPU 지원 전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테스트 전형은 외부와 차단된 원격분석환경에서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 전형과 AI 전형으로 구성된다. 원격 분석환경 내에서 고성능 GPU 이용을 희망할 경우 AI 전형으로, 그 외는 일반 전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GPU 지원 전형에서는 고성능 GPU를 기업당 최대 24주까지 이용 가능하나, 이용 실적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의 AI 개발인프라 구축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성능 연산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카드 ‘롯데마트 삼성카드’ 출시

롯데마트·슈퍼 최대 10% 할인

삼성카드가 롯데마트와 협업해 ‘롯데마트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마트 삼성카드는 롯데마트, 롯데슈퍼 매장에서 최대 10% 할인을 월 최대 3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또, 롯데마트의 온라인몰인 ‘롯데마

트 제타’ 이용 금액의 최대 10% 할인을 월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한다. 롯데마트 제타의 유료 멤버십인 ‘제타패스’ 월 구독료 2900원 할인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 영역에서의 혜택도 있다. 음식점·주유·아파트관리비·통신·의료 5%, 영화 50%, 해외 가맹점 1%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 모두 2만원이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금호석유화학그룹, 공급과잉 정면돌파... 고부가·효율화 승부

화학 계열사 경쟁력 강화 속도
SSBR·MDI·EPDM 증설 확대
친환경 소재 앞세워 시장 공략
공급 안정·판로 다변화 추진
레저 부문 체질 개선 본격화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 장기화 속에서도 계열사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등 주력 화학 계열사는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효율화, 시장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 중이다. 소재·건축자재 관련 사업과 레저 부문도 친환경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사업 기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자동차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설비를 지난해 3만5000톤 규모 늘렸고 올해 1분기부터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SSBR은 타이어의 마모 성능과 연비, 내구

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고기능성 합성고무이다. 배터리 탑재로 차량 중량이 늘고 가감속이 잦은 전기차 환경에 적합한 소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금호석화가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확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호석유화학은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가동률과 스프레드 반등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성고무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NB라텍스(NBLatex)의수급 밸런스 개선,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추세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

I) 생산능력을 10만톤 확대하는 디보틀네킹(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투자를 결정하며 2024년 20만톤 증설에 이어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독자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를 높여 투자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MDI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호폴리캠도 지난해 에틸렌 프로틸렌디엔 고무(EPDM) 7만톤 증설을 마치고 연산31만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EPDM은 내열성과 내기후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로 자동차와 선박, 산업용 전반에 폭넓게 쓰인다. 금호폴리캠은 증설을 바탕으로 스페셜티 제품 확대와 공정 혁신을 병행하며 수익성과 원가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등과 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수용성 친환경 에폭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고부

가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동성케미컬과의 합작사 디엔케이캠텍은 기능성 준불연·심재 준불연 단열소재인 페놀폼(PF)보드를 금호석유화학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후그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심재 저탄소 인증 등 각종 환경 인증도 확보하며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금호리조트는 여행·레저 수요 변화에 맞춰 시설 경쟁력과 체험형 콘텐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CC를 운영하는 골프사업부는 조경 개선과 잔디 생육 환경 정비, 레이크 수질 관리, 배수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며 운영 품질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각 사업 부문이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대응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일시적인 실적 흐름에 매몰되기보다 기술과 품질,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의 방향성을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고망간강 ISO 제정... LNG 강제시장 확대

KOMERI 주도 포스코·한화오션 참여
소재 생산부터 부품 제조까지 포괄



포스코가 독자개발한 고망간강이 적용된 광양 LNG 터미널5호기 탱크.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로 급저온 저장·수송용 강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관련 국제표준이 제정되며 일본·유럽 중심 시장 구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주도로 포스코, 한화오션 등이 참여한 고망간강 관련 국제표준(ISO)이 최종 발간됐다. 표준은 소재 생산부터 부품 제조까지 전 공정을 포괄하며, 주조품·단조품·용접 피팅류·용접 강관·강판 등 5종으로 구성됐다.

KOMERI에 따르면 고망간강은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영하 162도 이하에서도 높은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하는 소재다.

업계에서는 이번 ISO 제정의 핵심을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보고 있다. 글로벌

별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해 7월 HIC 강재로 아랍코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신규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급저온용 강제 시장은 그동안 일본제철과 아르셀로미탈 유럽 자회사 인두스틸 등이 LNG용 9% 니켈강 대표 공급업

체로 주도해왔으며, 고망간강은 그 대체재로 꼽힌다. 니켈 기반 소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가공성이 우수하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강은 망간 함량 22% 이상으로 고강도·내마모성·비자성 특성을 갖췄다. 항복강도는 335MPa 이상으로 일반 스테인리스강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상용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광양 제2 LNG 터미널 5·6호기 내조탱크에 고망간강이 적용됐고, 7·8호기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고망간강이 LNG 저장·수송 설비 전반에 적용되며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판 하위 품목으로 분류돼 별도 매출 비중 산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9% 니켈강 수요가 없어 고망간강을 국내에서 전량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도 지난해 5월 포스코와 합정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HD현대중공업, 美·동남아 방산전 연속 출격

美 최대 해양 방산전 첫 참가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 역량 공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 부각

개 방산기업이 참가하며, 약 1만6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전시회에서 LIG넥스원과 함께 150㎡ 규모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미래형 전투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첨단 함정 모형이 전시된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해양 방위 전략을 뒷받침할 파트너로서 함정 건조 역량과 무인체계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미해군이 당면한 함대 재건 수요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

너리는 점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어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DSA 2026’에도 참가한다. 이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해군이 추진 중인 중장기 함대 재편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DSA 2026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과 재난 구호에 적합한 다목적지원함을 비롯해 연안임무함, 원해경비함, 다목적 호위함, 수출형 잠수함 등 말레이시아 해군의 전력 강화 수요에 맞춘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원호HD현대중공업 사장은 “K-해양 방산 선도기업으로서 함정 수출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구광모 “LG 존재 이유, 고객의 더 나은 삶”

(LG그룹 회장)

LG어워즈서 고객가치 경영 재차 강조
“기술·제품 아닌 삶의 변화가 본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치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닌 고객의 더 나은 삶이다.”

19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2026 LG어워즈’에서 “고객 심사단이 남긴 ‘LG는 생활 그 자체’라는 말에 LG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8화째를 맞은 LG어워즈는 한 해 동안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성과를 낸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행사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700여 명의 수상자와 583개의 우수 과제를 배출했다.

올해는 특히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해결을 넘어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고객경험의 완성도를 높인 과제 ▲경쟁을 뛰어넘는 도전과 성과를 낸 사례 등 총 730명의 수상자와 91개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구광모 대표는 취임 이후 매년 LG어워즈에 참석해 현장의 혁신 사례를 직접 챙기며 구성원들의 도전을 응원해 왔다.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어워즈에서 구광모(주)LG 대표가 고객 심사단이 남긴 소감을 언급하며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LG 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입자경계 코팅 95%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해 대상을 수상했다.

입자경계 코팅은 양극재 입자 경계에 코팅을 적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와 수명,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한 기술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안테나와 텔레메트릭스를 통합한 ‘스마트 안테나 5G 텔레메트릭스 모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차량 설계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구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신형 TV·오디오 체험행사 흥행

‘AI TV 워크’서 신제품 체험행사 호응

삼성전자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형 TV와 오디오 신제품 체험행사 ‘삼성 AI TV 워크’가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고객과 B2B 거래선 등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신제품 체험존에서 ‘미이크로 RGB’, ‘OLED’ 등 프리미엄 TV 라인업부터 이동형스크린 ‘무빙스타일’,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와이파이 스텝

피커 ‘뮤직 스튜디오 5·7’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삼성 TV 및 사운드 디바이스 신제품 라인업을 체험했다. 신제품 체험존은 ‘미이크로 RGB’, ‘무비’, ‘아트·디자인’, ‘스포츠’, ‘게임’ 등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각 존에서는 전문 프로모터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주요 기능은 물론, 삼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AI 비전 컴패니언’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AI TV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제품 하나에 목숨 달린 소상공인… 패키지로 정체성 세워야”

(Identity·아이덴티티)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임 일 교 팩터 대표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연은 영화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잘 만든 제품을 고객이 눈으로 보고 선택해 결국 구매로 이어지도록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품이 주연이라면 패키지 디자인은 조연인 셈이다.

패키지 디자인 전문회사 팩터(Pactor)를 이끌며 30년 넘게 외길을 가고 있는 임일교 대표는 주연에 버금가는 조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사장의 입(맛)은 책임 못 져도, 손님의 눈(구매)은 내가 책임진다”는게 그의 지론이자 신념이다. 맛은 사장이, 멋은 그가 담당하는 셈이다.

어느날 전남 목포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연락도 없이 서울 용산에 있는 임 대표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떡집은 12가지 맛의 설기떡이 대표 제품이었다. 떡은 잘 만들지만 판매가 시원치 않아 부부에겐 묘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떡집 부부와 한참을 이야기 한 뒤 돌려보냈다. 그런데 꽤 시간이 흘러도 동통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매일 1시간 정도씩 상념에 잠기는 시간을 활용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문득 ‘목포의 달’이 생각났다.



임일교 팩터 대표가 서울 용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우리떡 브랜드 만들기 캠페인’ 펼쳐 10년간 1000곳에 디자인 무료 나눔 디자인부터 인쇄·포장·물류까지 원스톱 시스템 패키지 생산공정 패키지 아이디어뱅크 ‘크리팩’ 구축

임 대표는 부부에게 제안을 해 12가지 떡맛을 10가지로 줄였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그는 ‘목포 명인이 진심을 담은 열개의 보름달떡’과 함께 ‘만산을 기다리는 목포항구의 달’, ‘어부를 기다리는 유달산의 달’까지 포함해 ‘목포에 뜨는 열두개의 달’을 이야기로 풀었다. 10가지 떡이 들어간 선물 상자를 열면 노란 ‘목포의 달’이 떠오르

는 패키지도 만들었다. 경북 예천에 있는 조그마한 참기름집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과정도 그랬다. 그는 예천으로 내려갔다. 고객을 만나보고 참기름 맛을 보기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뜸 주인이 차려준 밥상이 인상적이었다. 원래 이곳은 청국장만 만들던 집이었다. 밥상에서 임 대표는 시골 어머니의 맛이 떠올랐다. 그의 고향은 충남 부여다. 참기름 맛도 다르지 않았다. 이 참기름 브랜드는 15년째 임 대표가 해준 디자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사이 참기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고급 호텔과 백화점 등까지 납품하고 있다. 참기름박물관까지 열었다. 맛은 참기름집 주인이, 멋은 임 대표

가 책임진 결과다.

디자인 회사 대표는 떡에 푹 빠졌다. 본인이 떡을 좋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떡 브랜드 만들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다.

“무작정 명장 관련 협회를 찾아갔다.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브랜딩을 하기가 어렵다. K-푸드의 대표 제품중 하나인 떡을 부활시키고 잘 팔리는 떡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디자인 무료나눔이 떡집만 1000군데가 훌쩍 넘었다.(웃음)”

임 대표가 우리떡 부활 캠페인을 펼친 10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대체 먹거리의 등장으로 4만 개가 넘었던 전국의 떡집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임 대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디자인 나눔을 해준 떡집은 90% 이상이 생존해 있다. 브랜딩 효과도 (살아남는데)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일수록 패키지 디자인 등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기업에서 디자인, 마케팅, 광고 등의 업무를 하다 ‘한국패키지디자인센터’의 줄임말인 팩터를 창업했다. 벌써 16년의 시간이 지났다. 팩터는 디자인센터 뿐만 아니라 인쇄, 코팅, 합지, 톱스, 접착, 클린포장, 물류까지 원스톱

시스템의 패키지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국내에서 몇 안되는 회사 중 한 곳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단가를 맞추기위해선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관련 분야에서도 중국산이 몰려들어 단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팩터는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 패키지를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아이디어뱅크 성격의 ‘크리팩(crepack)’도 구축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품 하나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명의 고객을 맡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만들기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현재 1만명 수준인 디자인 무료나눔 자영업자패키지를 3만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임 대표 자신도 한 때 월간 패션잡지, 인쇄공장을 운영하다 큰 고비를 맞기도 했다. 실패한 사업 때문에 진 빚을 갚느라 죽고 고생도 했다. 그러다 정말 힘이 들어 나쁜 생각까지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소상공인의 삶을 잘 알고 있다.

“패키지 디자인에 관련한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국내는 너무 좁다. 우리의 역량이 담긴 한국의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싶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기부, ‘비정상 관행·제도’ 국민 의견 받는다

‘중소 분야 비정상적 관행·제도’ 발굴 위해 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 노용석 1차관 주재 태스크포스 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들로부터 중소기업 비정상적인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도 꾸렸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적 관행·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회와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들이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 내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하면 1차 검토·선별 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 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 내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글로벌 지속가능 100’ 선정

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등 기여

기술보증기금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협회(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6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기업·브랜드 100’에서 특별부문인 ‘소비자 추천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50’에 선정됐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기구로,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해 매년 ‘글로벌 지속가능 100’을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 100’은 ▲환경 ▲지배구조 ▲정책 ▲경제성과 ▲혁신성 등

총 10개 기준과 43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 추천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부문은 소비자 관점의 브랜드 신뢰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보는 녹색금융을 바탕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평가를 활용한 보증과 투자 연계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데이터 기반 ESG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김승호 기자

“롯데백서 만나는 비건 매트리스 ‘N32’”

시몬스, 내달 14일까지 잠실점서 팝업

비건 매트리스 N32가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19일 시몬스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프라이빗 리조트로 체크인’을 테마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 테마는 앞서 3월 진행한 ‘N32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팝업스토어 방문객들은 도심 한가운

에서 일상을 벗어나 N32가 선사하는 진정한 휴식의 가치와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N32의 주력 제품으로 기존 폼 매트리스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N32 폼 매트리스’를 비롯해 국내 전동침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32 모션베드’, 트윈슈퍼싱글(TSS) 프레임 ‘마르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같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소비자가 선정한 ‘2025 퍼스트브랜드 대상’ 폼 매



비건 매트리스 N32가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트리스 부문, ‘2025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대상’ 침대·매트리스 부문을 잇따라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한유원 ‘행복한백화점’, 중소기업 제품 프로모션

‘동행축제’ 동참… 판매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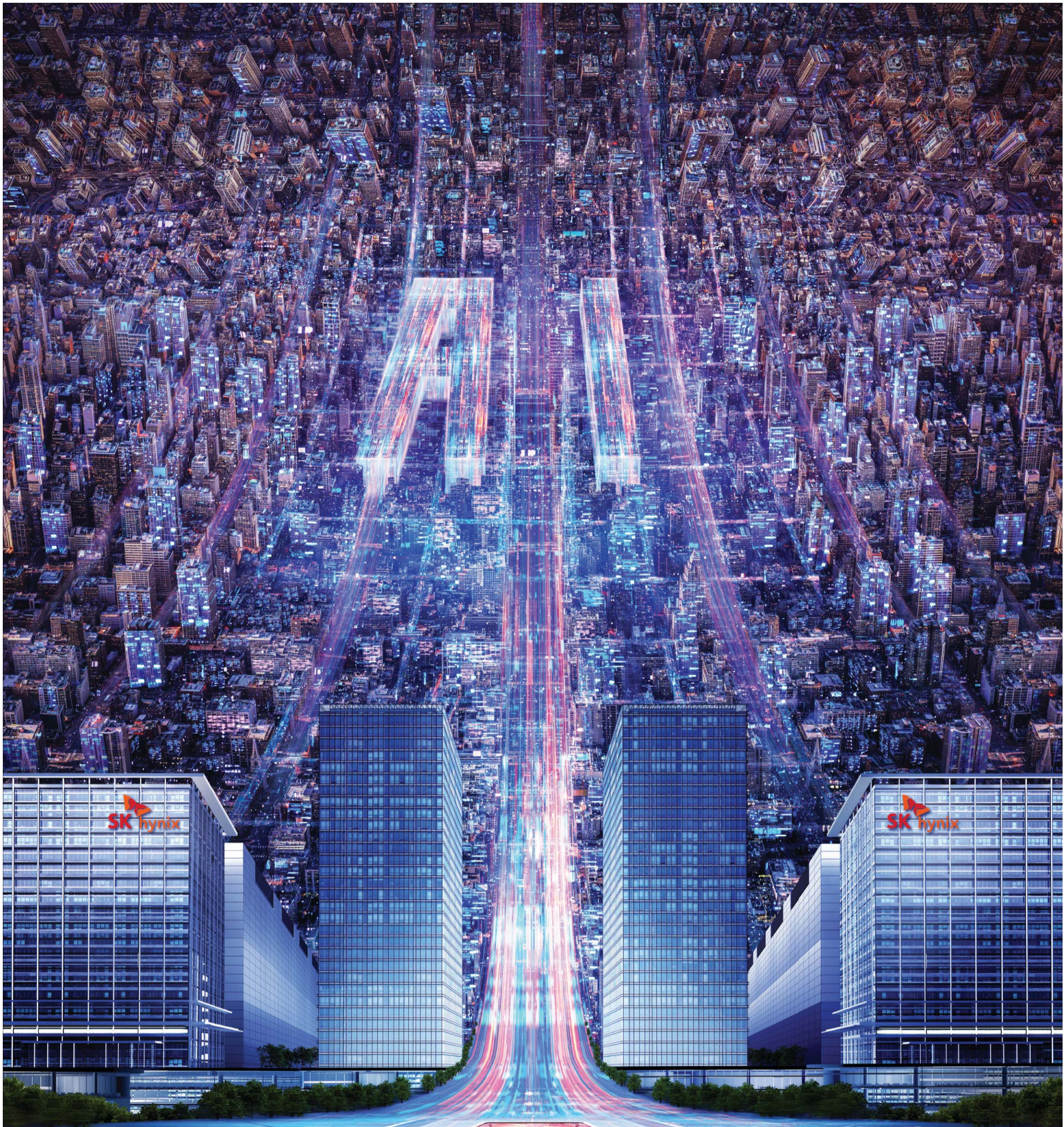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운영하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이 ‘4월 동행축제’에 동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19일 한유원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백화점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서울 목동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5월10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 기간동안 행복한백화점은 매주 테마에 맞는 중소기업 제품을 모아 백화점 앞(백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은 오는 5월10일까지 열리는 ‘4월 동행축제’ 기간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화점 3문 앞) 야외 광장에서 판매전을 진행한다. 주차별 행사 기간은 ▲4월 17일~19일 ▲4월 24일~26일 ▲5월 1일~5일 ▲5월 8일~10일이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행복한백화점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시만 붙이면 투자된다?”… 시장 왜곡·신뢰 훼손 우려

오늘 AI

스타트업 투자자금, AI 분야 몰리며
기술력보다 마케팅 강조 사례 증가
실제 성과 입증기업 ‘옥석 가리기’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쏠림 속에 ‘간판만 AI’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 왜곡과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AI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앞세운 투자 유치와 신사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실체보다 ‘AI’라는 이름에 기대는 이른바 ‘AI 워싱’ 우려가 커진다.

특히 투자와 관심이 AI 분야로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기술력 검증보다 ‘AI 간판’이 앞서는 흐름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AI



최근 인공지능(AI)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간판만 AI’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AI워싱’을 경고하는 이미지.

관련 기업에 자금과 관심이 집중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AI를 붙이지 않으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순 자동화 기능이나 규칙 기반 시스템, 기존 챗봇 수준

의 서비스까지 ‘AI 기반’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투자 판단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익 모델과 기술 완성도가 핵심 평가 요소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AI

적용 여부’가 사실상 1차 판단 기준처럼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술력보다 마케팅 요소가 부각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투자자들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진짜 AI와 기능 확장을 포장한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검증보다 ‘AI 서사’가 앞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AI 중심으로 투자 기준이 재편되며 ‘비AI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AI 워싱’은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만 부풀려질 경우 향후 투자 회수 단계에서 조정

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최근에는 ‘AI를 한다’는 설명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활용 방식과 기술 구현 수준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AI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요소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라며 “문제는 일부에서 기술 고도화보다 ‘AI라는 표현’을 어떻게 붙일지에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결국 시장이 한 차례 옥석 가리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성과와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현재의 ‘AI 워싱’ 흐름도 점차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전화번호 담긴 IMSI… LGU+ 보안 도마위

(가입자 식별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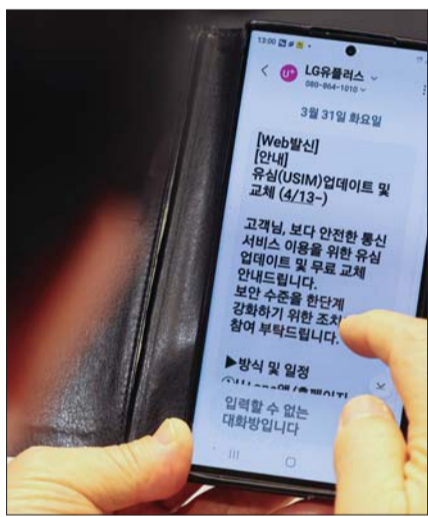
SKT·KT는 난수 기반 체계 적용
보이스피싱 등 악용 가능성 제기
유심 교체·업데이트에도 논란 커져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실제 전화번호를 포함해온 구조가 드러나며 보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심 교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적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IMSI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LG유플러스가 2011년 LTE 도입 이후 약 15년간 가입자 식별번호에 고객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과 KT가 예측이 어려운 난수 기반 체계를 적용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 IMSI는 국가코드(45)와 통신사코드(06) 뒤에 전화번호가 결합된 형태였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국제 표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실제 해킹이나 유심 복제에는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해 위험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G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당시에는 보안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시내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고객이 유심 안내 문자를 보고 있다. /뉴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과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은 기술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LTE 스키마를 활용해 특정 LG유플러스 단말 위치를 추적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운동장과 건물 내부 단말 위치를 식별했으며, 전화번호 기반으로 IMSI 신호를 포착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다만 김 교수는 해당 시연이 특정 통신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동일 기지국 내 단말 재부팅 시에만 확인 가능한 등 기술적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5일에는 깃허브(GitHub)에 익명의 보안 전문가가 IMSI 캐처를 활용해 인근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수집하고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공개한 영상이 게시됐다.

그는 “한국의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표적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심지어 물리적 위치 추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취약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MSI가 전화번호와 유사한 식별력을 가질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IMSI가 고유식별 정보가 아니라는 LG유플러스 측 주장과 상충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목적을 초과한 정보 활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치 추적은 IMSI 캐처 장비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며 “난수 기반 대비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모델 기술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력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 방향을 구체화했다.

회사는 대규모 모델 경쟁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 AI 개발 전략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월드모델 연구는 대규모 인프라 없이도 최적화된 학습 구조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는 인프라 제약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최빛나 기자

피지컬AI협회,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

정부 R&D 과제 참여

한국피지컬AI협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제1차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 내 피지컬AI 표준전문연구실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전담하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피지컬AI협회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약 8년이다.

과제는 피지컬AI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의제 선점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기술 규격 중심을 넘어 실제 산업에서 작동하는 실행형 AI 구조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화 그룹 신설, 의장단 수임, 국제 표준 제안과 승인, 기술 개념증명, 산업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표준 전략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ITU-T,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 연계해 인지·판단·행동으로 이어지는 피지컬AI 구조를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확장한다. 문서 중심 표준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표준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연구부터 실증, 산업화, 제도 개선까지 연결해 표준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한국피지컬AI협회는 산업 현장의 활용사례를 수집해 국제표준 의제로 구조화하고 글로벌 논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표준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희 표준협회 의장은 “이번 과제는 피지컬AI 작동 방식을 글로벌 공통 언어로 정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 기반의 표준 의제를 주도해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NC AI, 2개 개발은행서 산업형 AI 공개

글로벌 시장 확장 방향 구체화

산업특화 AI 기업 NC AI는 지난 17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원에서 열린 글로벌 워크숍에 초청받아 자사 기술과 비전을 발표했다.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DB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아시아 주요국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했다.

NC AI는 ‘이노베이션 위드 NC AI’를 주제로 산업 도메인 데이터와 공정 프로세스를 반영한 풀스택 AI 솔루션을 소개했다. 제조, 국방, 유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효율을 높인 사례를 기반으로 범용 AI의 한계를 넘어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피지컬 AI와 월드

과기부, 자체 ‘에이전틱 AI’로 행정 혁신

업무 자동화로 효율성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에이전틱 AI를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개발팀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AI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팀은 AI 정책·산업 관련 부서 인력으로 구성돼 실제 업무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첫 결과물로는 글로벌 AI 산업·기술 동향과 주요 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

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해당 서비스는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서 요약, 법안 검토 지원, 출장 정산, 회의록 작성 등 반복적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 관련 세미나와 협업 도구 도입 등을 통해 업무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전 직원 대상 AI 개발·활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코스피 6000의 그림자... 반도체 쏠림에 '빚투'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66조7245억... 전체 41% 차지
양사 제외하면 코스피 4700대 수준
빚투 규모, 각각 49%·28% 늘어
증권사, 반도체 '매수' 신호 유지
반도체 투자 쏠림 경계 목소리도



신용거래 자금이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 /ChatGPT로 만든 이미지

A씨(34)는 지난 2일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당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을 3500만원 어치 샀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한 달도 안돼 45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러자 지난달 빚을 얻어 투자금액을 70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그는 투자 종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좁혔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다"며 "부동산 투자는 '시드머니'(종자돈)가 적어 엄두를 못 내고 주식 투자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뭉치듯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랠리의 속도만큼 뒤쳐지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

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도체 자금 쏠림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2066조7245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4995조5123억원)의 약 41%를 차지한다.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피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가 6226.05를 기록했을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지수는 4752 수준에 그쳤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유사하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를 약 4700 수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빚투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3조43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27일(2조3065억원) 대비 약 49%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액만 1조13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1조6468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신용잔고가 2조2305억원으로 증가했다. 2월 27일(1조7358억원) 대비 약 28% 늘어나며 증가액은 약 4947억원

으로 나타났다.

빚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이달 1일과 14일부터 신용거래용자와 증권담보대출을 재개했다. KB증권도 신용용자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복원했다. 하나증권 역시 신용거래용자를 재개했다.

◆증권가 반도체 "사리"

개인 투자자 직장인 B(30)씨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를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B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탔지만, 이후 기약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다. B씨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진짜 고수는 지금쯤 팔지 않을까 싶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86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8%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35조원, SK하이닉스를 251조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586조원으로 전년 대비 546% 급증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668%, SK하이닉스는 43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26만원, 135만원으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두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외부 충격에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근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산업 편중 문제는 자본시장보다는 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가깝고, 반도체 외 새로운 성장 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금감원, '가상계좌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저금리 대출·거래실적 확보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 유도해 자금 편취
부업·투자·중고거래서도 피해 발생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가상계좌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피해자를 넘어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물 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

또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나 "거래실적 확보"를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이 실제 금융회사나 상품을 언급할 경우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업·투자·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 피싱에서도 가상계좌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기는 피해 발

생 시 환급 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판매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명칭과 유사한 계좌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레버리지 투자 관리 강화

고령·초보 투자자 중심 위험고지
투자 적정성 점검 절차 체계화

신한투자증권은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초보 투자자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령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레버리지 투자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투자 적정성 점검 절차를 보다 체계화했다.

우선 서비스 등록 단계부터 실제 거래 실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웹(Web) 화면 대출 신청 및 신용거래 화면 내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해 투자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거래신청서, 신용거래설명서 내에 고령투자자 안내사항을 추가해 투자 경험, 연령,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한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초보투자자를 위한 교육 영상도 제작해 MTS 내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 영상에는 레버리지 투자 용어에 대한 쉬운 풀이와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예정이다.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점에서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투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고객 전담 상담센터인 신용대출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고객의 재무상황과 신용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복잡한 유동화증권 정보 한곳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참여기관 49곳, 유동화계획 9764건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의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면서 발행부터 공시, 신용평가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고, 금융당국은 시장 리스크를 보다 촘촘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평가다.

19일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2024년 1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e-SAFE'와 외부 공개 플랫폼인 'SEIBro'로 구성되며, 유동화증권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보강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한다.

현재까지 시스템에는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 27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 기타 기관 18곳이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에 달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946건, 2025년 4771건, 2026년 3월까지 1047건이 등록됐다. 이 중 공시 대상인 등록 유동화는 각각 224건, 247건, 47건이며, 비등록 유동화는 3722건, 4524건, 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운영 강화는 법 개정 이후 확대된 정보공개 범위와 기존 시스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의무보유 내역 등 신규 데이터 수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등록자의 입력 정보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의무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확대하는 등 정보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생태환경 보호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교보증권, 셋강생태공원 환경 보호활동

씨드볼 제작·교란식물 퇴치 활동
교보증권은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에서 생태환경 보호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심 속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씨드볼 만들기과 교란식물 퇴치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임직원들은 공원 내 생태 복원을 위한 씨드볼을 제작하며 식생 회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오래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도심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에 힘을 보탤다. /신하은 기자

기후부·한전, 에너지 신기술 속도... 혁신 비즈니스모델 발굴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ESS·V2G 등 8개 분야 전문가 참여 5개월간 정기 회의서 신사업 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이 손잡고 에너지 신기술의 시장 도입과 정책화를 앞당기기 위한 '브레인 집단'을 본격 가동한다.

5개월 내 에너지신사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전력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포럼은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송변전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앞줄 좌측에서 네번째부터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김동철 한전 사장,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한전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Vehicle to Grid) ▲VPP(가상발전소)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이다.

포럼에는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총 114명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

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통합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포럼은 그간 일회성 발제와 토론에 그치며 후속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포럼의 한계를 넘어, 연속적이고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각 포럼별 위원들은 향후 5개월간 월 2~3회의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지연돼 온 에너지 신사업 분야 장애요인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실증사업부터 한전 기술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혁신기업으로의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연결하는 페스트 트랙(Fast-Track)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전력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제가 도출될 때마다 포럼을 추가 또는 조정 운영하는 등 논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성과는 혁신기업들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포럼에서 도출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는 기술·시장·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와 한전이 중심이 돼 산·학·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에너지 신기술이 실제 시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중견기업 35곳에 4660억 금융지원

수출·기술개발 등 유망기업 대출·1.0%p 금리우대 제공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의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35개사를 선정, 총 46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 ▲디지털 전환(DX) 등 4대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 선정은 지난 3월 공고를 시작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 KIAT(기술), 중견연(ESG), 산업지능화

협회(DX)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총 35개사(중견 28개, 후보기업 7개)다. 이들 기업은 업체당 최대 300억 원의 대출과 함께 최대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8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사인 A사는 300억 원을 지원받아 인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신시장에 진출했으며, 정보통신

기업 B사는 280억 원의 자금으로 신규 AI 사업 R&D 및 사업화에 착수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4월부터 연말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 공고는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그 밖에도 융자, 보증, 펀드 등 다양한 정책 금융을 동원해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 자율성 논란... 직선제 재검토 요구

조합장들, 회의론 제기하며 반발

을 촉구했다.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협의회가 헌법에 의거한 농협 자율성을 비롯,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지침에 따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

결의대회에서는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박정수협의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 "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사 직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T, 72억 투입 '농식품 수출기업' 돕는다

중동 전쟁 여파 기업 부담 완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26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활용한다.

사업의 핵심은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물류비 상승, 운송 지연 등의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무역현안 대응'이다.

▲생산·수출기반 조성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지원 등 총 23개의 지원 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중동 지역에서 개최한 K-푸드 박람회. /aT

중동 지역 목적지까지 우회비용, 수출 화물의 반송비용, 현지 발생 지체비용 등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물류, 보험 등 중동 전쟁과 직접 관련된 4개 메뉴에 배정액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aT는 할당된 추경 예산 72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수산시장 등 안전점검

오늘부터 2개월간 869개소 대상

해양수산부가 항만·어항시설과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해양수산시설 869개소가 대상이며, 점검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가 목적이다.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항만·어항시설을 비롯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 안전활동 평가 'A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보는 준정부가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했다. 무보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비롯해 안전보건 교육, 인식, 활동 참여 등 세부 항목 전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무보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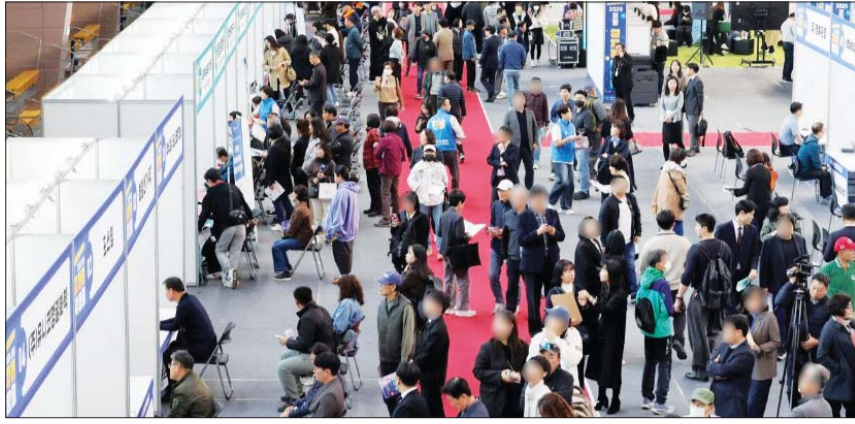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포항시, 산업전환·세대맞춤형 일자리로 고용 활력 높인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 수립 6198억 투입·3.4만개 일자리 목표 혁신·체류형·맞춤형 등 정책 추진 청년·여성·중장년 맞춤 고용 지원 노인·생활밀착 공공일자리 확대



지난해 10월 만인당에서 열린 2025 포항일자리박람회.

포항시가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회의 도시' 실현을 위해 2026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총 6,198억 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700개 늘어난 3만 4,5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해 공표하는 제도로, 포항시는 매년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청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

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2025년 12월 기준 포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9%에 달하는 반면 청년층 비중은 13.7%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2026년에는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일자리 ▲지역 특화 지원 기반 체류형 일자리 ▲모두가 누리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 일자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혁신 일자리 분야에서는 산업 인공 지능 기반 제조혁신 인력 양성과 스마트제조·디지털 전환 지원, 이차전지 산업 업종 전환 등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체류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유산 해설사 육성 등 관광·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

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여성 전기기능공 양성,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센터, 자투리시간거래소,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 해소도 병행한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관리 등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과 '포항형 일자리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 발굴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산업 전환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발광형 표지 도입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전 구간에 발광형 도로표지를 도입하며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2026년 도로표지 정비공사'의 핵심 공정인 발광형 도로표지 22개소 설치를 지난 17일 마쳤다고 밝혔다. 설치 위치는 광안대교 상·하층 주요 분기점 등 시인성이 취약한 지점이다. 발광형 도로표지는 고휘도 LED를 활용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 도로 정보 전달력이 일반 표지에 비해 높아 광안대교를 처음 찾는 관광객과 고령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높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

목포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는 GX(Great eXperience)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대전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용해동 동아사거리에서 목포기후·환경네트워크와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함께 출근 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홍보할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광주시, 정책통합 속도낸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착수 18대 과제 실행계획 구체화 작업 속도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책 통합과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19일 시·도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18대 과제 중 주요정책 통합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이번 방안에 담고 있다.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적용할 정책의 밑그림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6월까지 분야별 통합방안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7월 출범 이후에는 이를 실행·보완할 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중점 검토 대상은 통합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시책, 실국 소관 핵심 시책,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특례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이다.

정책 통합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도는 실국과 연구원이 참여하는 정책통합·행정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통합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요 정책 목록을 작성한 뒤 시·도 여건과 정책 방향을 비교·검토하고 핵심 통합정책을 분석,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일관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시·도 간 차이와 통합 방향을 반영한 분야별 정책 추진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승규 기자 ysn6313@



지난 16일 중국 선전시 열린 포스트 APEC 투자포럼 개막식.

/경북도

경북도, 中 선전시 투자유치 협력 확대

포스트 APEC 中 투자포럼 열고 교류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시에서 포스트 APEC 경상북도 중국 투자포럼'을 열고 글로벌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했으며, APEC 개최도시 간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경북의 투자 환경을 국제 시장과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도 및 시·군 관계자, 기업인과 함께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종선 상무영사, 선전시 관계자,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선전시 난산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고글로벌'과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텐센트, DJI 등 글로벌 IT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중국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선전 하이테크 기업의 경북 유치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전시 중소기업발전추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 미래차 편의부품 기반구축 사업 선정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70억 투입

경주시가 산업통상지원부 주관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재원은 국비 5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90억원으로 구성된다. 수행은 경북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핵심 내용은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 건립과 주행환경 변화 대응 장비 구축, 탑승자 중심 핵심부품 개발 지원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는 현재 총사업비 851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기공센터,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등 3개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여기에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연구센터가 추가되면 소재·부품·배터리 안전에 더해 편의·안전 분야까지 아우르는 산업 기반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기업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단계 기술 적용, 신뢰성 시험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화

해외 조선 호황 속 5개분야 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활용해 지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조선소와 중소기업 협력체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5개 분야 12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개 분야는 ▲조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초격차 기술 확보 등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한미 협력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조선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이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제시 장목면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 기술 혁신(DX)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에는 용접로봇 등 생산 자동화 장비 22종과 자동화 실증 테스트베드가 갖춰진다. 또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40억원을 투입, 중소형 조선소와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발굴부터 설계, 성능 검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영양산나물축제' 내달 7일 개막

영양군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영양문화원 및 읍내시가지에서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영양산나물축제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봄 축제로, 자연이 선사하는 산나물의 향과 맛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온 지역 대표 콘텐츠다. 올해 축제는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을 주제로 먹거리와 체험, 스토리를 결합한 미식 중심 축제로 운영된다. 특히 산나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 요리와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며, 축제의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387@

경상국립대학교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대학 선정

경상국립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첫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기업의 실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학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경상국립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류·발표 평가에서 지역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기반과 실습·프로젝트 중심 교육 과정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경남=이도식 기자

명품 로고보다 자기만족·실속 우선 중고거래·직구로 똑똑한 소비한다

명품 소비 관련 인식조사

77% “과시적 스타일 불호” 응답
타인의식보다 자기만족으로 구매

주얼리·시계로 투자형 소비
젊은층 중심 유연한 소비 확산

한때 ‘부의 상징’이자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품 소비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실용’과 ‘자기만족’ 중심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 과시적인 로고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와 본질에 집중하는 ‘조용한 럭셔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고거래와 직구를 통해 명품을 스마트하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명품 소비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시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다. 전체 응답자의 76.8%는 “과하게 과시적인 명품 스타일은 오히려 촌스럽다”고 답했으며, 70.8%는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명품이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큰 로고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이른바 ‘올드머니 룩(Old Money Look)’으로 대표되는 절제된 미학이 국내 명품 시장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안착한 셈이다.

명품의 가치 기준 역시 ‘인지도(46.8%)’보다는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62.1%)’와 ‘장인 정신(44.8%)’ 등 본질적인 요소에 무게가 실렸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의 ‘VVIP 케어 서비스(68.0%)’나 ‘브랜드 스토리(48.2%)’를 명품 가치의 일부로 인식하는 등 경험 중심의 소비 경향도 강화됐다.

명품 구매의 목적도 ‘타인 의식’에서 ‘자기만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응답자의 59.7%는 “남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



서울 프라다 매장의 모습. /뉴시스

로 만족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57.3%는 명품 소비를 ‘나 자신에 대한 보상(Self-gift)’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과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용적·자기만족적 경향은 품목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방이 대중화되면서 희소성이 높은 주얼리와 시계가 명품 시장의 새로운 ‘키’로 부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가리코리아의 매출이 37% 급증하고 백화점 주얼리 부문 신장률이 전체 명품의 두 배를 기록하는 등 ‘패션에서 자산’으로 소비의 성격이 이동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셀 시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이 좋은 주얼리와 시계는 이제 단순한 사치가 아닌 투자형 소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명품 소비 열풍이 한풀 꺾인 양상도 포착됐다. 올해 명품 구매 경험률은 56.0%로 집계됐으나, 2022년과 비교해 20대(46.8%→41.0%)와 30대(67.6%→57.5%) 등 핵심 소비층에서 경험률이 하락했다.

이는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 속에 명품을 ‘사치’로 규정하는 비판적 시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0대 응답자 중 명품을 사치로 보는 비율

은 2022년 38.4%에서 올해 53.0%로 크게 뛰었다. 명품 착용자에 대해 ‘과시하는(50.3%)’, ‘사치스러운(43.8%)’ 이미지를 떠올리는 응답도 여전히 높았다.

명품 구매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응답자의 61.5%가 “중고 명품 거래가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라고 답할 정도로 거부감이 낮아졌다.

실제 구매 채널에서도 20대는 백화점 외에 중고 거래 플랫폼,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성비’와 ‘희소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적 소비 행태를 보였다.

한 예로 무신사의 중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는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액이 서비스 초기인 지난해 9월 대비 50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대중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만족과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가 구매 대신 중고나 직구를 택하는 유연한 소비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편의점서 ‘쿠팡 와우카드’ 사용하면 최대 2.4% 적립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 적립률 2배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쿠팡캐시 혜택

쿠팡이 KB국민카드, 비자(Visa)와 손잡고 선보인 ‘쿠팡 와우카드’의 편의점 적립 혜택을 두 배로 키웠다. CU·GS 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2.4%를 쿠팡캐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오프라인 소비를 다시 쿠팡 생태계로 연결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전용 제휴카드인 ‘쿠팡 와우카드’의 오프라인 편의점 결제 적립률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국내 4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결제 시 최대 2.4%를 쿠팡캐시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 적립률

(1.2%)의 두 배에 해당한다.

적립 구조는 기본 0.2%에 프로모션 2.2%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편의점에서 월 100만 원 한도 내 사용 시 최대 2만 4000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와우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 결제 시 4%(월 최대 4만 원), 편의점을 제외한 국내의 가맹점 결제 시 1.2%(월 최대 1만 2000원)가 적립된다. 비자 브랜드 카드의 경우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도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합산하면 월 최대 6만 4000원의 쿠팡캐시 적립이 가능하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쿠팡뿐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처에서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점 적립률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패턴에 맞춘 제휴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피크닉·캠핑 시즌 맞아 간편식 4종 선보

현대그린푸드 ‘그리팅몰’서 판매

현대그린푸드가 날씨가 따뜻해지며 늘어난 피크닉·캠핑용 간편식 수요 공략에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에서 캠핑용 간편식 4종을 새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오리엔탈 치킨볼, 맥시칸 타코볼, 명란 김 그라탕, 미트볼로제 파스타 총 4종으로 모두 피크닉이나 캠핑장에서 손쉽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냉동 간편식 제품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피크닉·캠핑 수요가 늘면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가 그리팅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난달 간편식 매출은



현대그린푸드 그리팅몰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피크닉용 간편식. /현대그린푸드

작년 3월과 비교해 27% 늘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러한 매출 호조의 배경에는 지난해 피크닉·캠핑용 수요를 겨냥해 품목수를 대거 늘린 데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피크닉·캠핑 수요를 겨냥한 간편식 제품을 지난 2024년 76종에서 지난해 9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와규 함박 스테이크’, ‘부드러운 바비큐 폭립’, ‘피타브레드 랩 샐러드’, ‘타코 쉬림프 랩 샐러드’ 등이 대표적이다. /신원선 기자

CU,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 편의 강화

무료택배·100원대 실속형 제품

CU가 전국 지자체의 ‘2026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사용 시기에 맞춰 무료택배 서비스와 추가 혜택을 마련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만 11세~18세(지역별 상이)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서울(구로·성동)과 경기 27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 강원 2곳, 전북 2곳, 전남 2곳, 경상권 1곳 등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CU는 바우처 사업 운영 지역 점포와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를 통해 생리대, 위생팬티 등 60여 종의 다양한 위생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CU는 바우처 이용 고객의 접근



CU가 전국 지자체의 ‘2026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사용 시기에 맞춰 무료택배 서비스와 추가 혜택을 마련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BGF리테일

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은 점포 내 카탈로그나 포켓CU 이벤트 페이지에서 상품을 확인한 뒤 원하는 점포에 입고를 요청한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결제하면 된다. 결제 상품은 지정된 주소로 배송돼 거주지 인근 점포에 상품이 없거나 대량 구매가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격 경쟁력도 강화했다. CU는 장당 100원대 수준의 실속형 생리용품 무료택배 상품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깨끗한 나라 퓨어 중형’은 장당 약 102원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며, 해당 상품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리워드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동원청정램’ 양고기 반값 할인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협업

따뜻한 날씨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구이용 육류 수요가 살아나는 가운데, 삼겹살을 넘어 양고기 같은 이색 구이류를 찾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양고기 매출은 봄철 들어 큰 폭으로 늘었고, 이에 맞춰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와 협업해 22일까지 전 점에서 ‘동원청정램’ 전 품목을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3일부터 29일까지는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봄철 날들이 수요를 고려해 ‘양 숄더랙’, ‘양 목심’ 등 구이용 부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양 숄더랙(100g·냉장·호

주산)’은 22일까지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된 2990원에 판매된다. ‘양 목심(100g·냉동·호주산)’, ‘양 어깨살(100g·냉장·호주산)’, ‘양 프렌치드레(100g·냉장·호주산)’도 기존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같은 기간 다른 축산 할인도 진행된다.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요리하다’ 스테이크류 5종 역시 엘포인트 회원에게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동원청정램’은 호주에서 방목해 자란 1년 미만 양고기를 선별해 항공 직송 방식으로 들여오는 상품이다. 신선도를 강조한 수입 양고기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남매 경영 끝낸 콜마그룹... '바이오'로 성장축 바꾼다

윤상현 부회장 중심 체제 강화
한국콜마로 화장품사업 일원화
CRO 기업 우정바이오 인수

콜마그룹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강화한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생명과학을 핵심 성장 축으로 세워 그룹 가치사슬을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1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콜마그룹 창업주 일가 내 경영권 갈등의 불씨가 됐던 '남매 경영'이 종료됐다. 지난 15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사임해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다. 윤여원 전(前) 대표는 사내이사직만 유지한다.

그간 콜마그룹에서 핵심 계열사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사업은 창업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장녀 윤여원 전(前)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전개하는 남매 독립 경영이 이뤄져 왔다.

이번 체제 개편은 지난해 10월 윤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오른쪽).

/콜마그룹

원·윤상현·이승화 3인 각자 대표 체제 출범 후 6개월 만이다. 다만 당시에도 이승화 대표가 경영을, 윤상현 부회장이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을 맡았다. 윤여원 전(前) 대표는 사회공헌 등 대외 활동을 담당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전문경영인 체제가 예고됐다.

콜마그룹은 이러한 콜마비엔에이치 경영 쇄신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해 실적에서 성장세가 정체됐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5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226억원으로 적자를 냈다. 사업별로 살펴봐도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3096억원, 화장품 매출에서 1296억원 등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각각 2.9%, 13.9% 줄었다.

콜마그룹은 우선, 콜마비엔에이치 비주력 사업을 정리해 그룹 내 중복된 화장품 사업을 한국콜마에서 일원화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콜마비엔에이치의 기존 화장품 관련 계열사 콜마스크, 에치엔지 등을 매각했다. 콜마스크는 한국콜마로 편입됐고 에치엔지의 화장품 제조사업은 한국콜마 종속회사 콜마유엑스가 양수했다.

이와 함께 콜마그룹은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는 지난달 비임상시험수탁(CRO) 전문기업 '우정바이오'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사장)을 우정바이오 신입 대표로 전면 배치했다.

우정바이오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효능 및 안전성 평가, 분석 시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바이오텍 액셀라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오간-온-어-칩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간-온-어-칩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생체 장기를 모사한 칩이다.

이는 콜마비엔에이치 주력 사업을 건강기능식품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재조정해왔다. 윤상현 부회장의 구상과도 맞물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콜마는 계열사로 HK이노엔, 넥스트엔바이오 등을 확보해 왔다.

신약개발 전문기업 HK이노엔은 이미 콜마그룹 내 바이오 사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 등 차세대 국산 신약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 모델까지 구축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 1조632억원, 영업이익 1109억원을 올렸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25.7% 커졌다. 특히 한국콜마 전체 매출에서 해당 매출과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 46% 수준이다.

또 넥스트엔바이오는 첨단바이오시장을 공략한다. 환자 유래 장기 모사체인 오가노이드 기술을 갖췄다. 콜마그룹 측은 향후 바이오 부문에서 또한 연구개발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그룹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환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청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바이오피스, '오보덴스' 연구서 효과 입증

골다공증 관련 국제학술대회서 발표
질환 특성 변수에도 일관된 효과 보여

삼성바이오피스가 16~19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골다공증 관련 국제 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프로젝트명 SB16)'의 임상 3상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바이오피스가 진행했던 SB16 글로벌 임상 3상의 하위집단(subgroup) 대상 탐색 목적의 분석으로,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456명의 연령 및 체질량지수(BMI) 등 인구학적 특성과 척추 골절 이력 등 질환 특성이 약물의 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삼성바이오피스가 16~19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골다공증 관련 국제 학술대회(WCO-IOF-ESCEO)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프로젝트명 SB16)'의 임상 3상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피스는 SB16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약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

/이세경 기자 seilee@

에서 하위집단 분석 대상 환자들의 요추(LS), 고관절(TH), 대퇴 경부(FN) 골밀도의 기준선 대비 변화율(CFB)을 분석해 치료 전후 효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학적 특성과 질환 특성 변수를 감안했을 경우에도 SB16과 오리지널 의약품은 하위군의 치료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삼성바이오피스 임상의학본부장 신동훈 부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 처방 환경의 다양한 환자군 범위에서 오보덴스의 일관된 치료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상용화 협의체 출범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통합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미 C&C 스퀘어에서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를 위한 전사 협의체 'EFPE-PROJECT-敍事(에페-프로젝트-서사)'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발, 임상, 생산, 유통, 마케팅 등 모든 제반사항을 하나의 실행 체계에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다.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관리 등에 효능을 갖췄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 안에 시판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고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

만약으로 출시한 이후 로드맵도 구상하고 있다. 당뇨 적응증 추가, 실시간 데이터 확보,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매 1년차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임상적 가치를 근거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장기 지속형 약물 기전을 다양한 질환에 확대 적용한다.

최인영 R&D센터장은 "약물을 서서히 흡수하는 특성과 완만한 혈중 농도 프로파일은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고 증량 과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현재까지 출시된 GLP-1 계열 약물 중 가장 우수한 심혈관 및 신장 질환 보호 효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알리글로' 응집 최소화로 안정성 확인

GC녹십자,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아

GC녹십자가 오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미국 흡인퓨전협회 2026 연례학술대회'에서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응집 특성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판 중인 면역글로불린 제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체 개발한 '알리글로'를 포함해 총 5종의 제품에서 단백질 크기, 입자 형태 등을 비교하며 상용화된 제품 내 단백질이 얼마나 묻쳐 있는지를 분석했다.

면역글로불린은 면역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며 단백질이 서로 묻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 '알리글로' /GC녹십자

응집 현상은 약물 안정성이나 환자 투여 시 이상반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품질 요소로 꼽힌다.

분석 결과, GC녹십자의 알리글로는 경쟁 제품들 대비 단백질 응집체와 분절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멜라 쿠션' 노화·피부톤 동시관리

동국제약은 데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멜라 캡처 토닝 에이징 커버 쿠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미 관리, 항노화, 피부 커버 기능을 한 데 담은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기미애플'의 핵심 성분 '멜라 캡처 애플'을 활용하며 전체 성분의 64%를 스킨케어 에센스로 설계해 피부 겉과 속에서 피부 노화 원인을 종합 관리해 준다.

또 토닝 테가 성분을 더해 피부 진정과 보습 기능을 갖췄다. 해당 성분은 병풀수에 동국제약 독자 성분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비타민나무수 등을 결합한 복합물이다.

/이청하 기자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PDRN' 임상 승인

주름 개선 효과 검증

대웅그룹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 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킨부스터 '디클래시 PDRN'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눈가 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측 눈가 주름 부위에 디클래시 PDRN을 시술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오는 5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총 366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해당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디클래시 PDRN은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차세대 제품이다. 기존 PDRN 제품군에서 지적돼 온 주입 시 통증, 시술 직후 엠보싱 현상, 결절 우려 등 환자 부담 요소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지바이오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고순도 저점도 PDRN 기반으로 설계돼 주입감이 부드럽고 피부 내 고른 시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시술 직후 일상 복귀 부담도 낮췄다.

/이청하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모친인 유한선 여사(사진)가 19일 오전 10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다.



고(故)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에스코명예회장과 결혼해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는 장인영 씨, 사위는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스 씨, 김동범 씨다. 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원관희 기자



LG생활건강, 청주 무심천 정화 활동 참여

LG생활건강이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사 1하천 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LG생활건강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청주대교~제1운전교)에서 50리터 종량제 봉투 5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주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 스티로폼, 페트병, 일회용품 등이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장애인식 개선 '인클루시브 데이' 개최

LG유플러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LG전자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LG 인클루시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장애인복지 단체와 협력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



동화약품, '윤도준 의학상'에 정정영 원장 수상

동화약품은 지난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제10회 윤도준 의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도준 의학상은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이 국내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해 제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정신건강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한 정정영 광화문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다. /동화약품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부음

▲이민숙씨 별세, 이재원(광주MBC 기자)씨 누나상 = 18일,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예곡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062-250-4455.

한국,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의장국 첫 진출

IEC TC110 의장에 삼성 이창희 선출
OLED·플렉서블 표준 주도권 확보
'기술 넘어 표준' 초격차 기반 마련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총괄 국가로 도약한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초격차'를 넘어 전세계 디스플레이 표준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표준 초격차'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IEC 110)' 차기 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IEC TC 110은 OLED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 디스플레이 강국들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표준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당선은 지난 9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의 독주를 막고, 한국이 위원회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한국은 9개 작업반 중 7곳에서 실무를 주도해왔으나,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희 CTO는 인하대 물리학과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친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지난 2018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의장 선거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OLED 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중국 측 후보와 경합한 끝에 최종 당선됐으며, 올해 10월부터 향후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된다.

이 CTO는 의장 수임 기간 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최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의 룰을 한국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이 CTO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TC 110 회원국들을 대상

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의장 수임이 우리나라가 미래 디스플레이 표준 개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국표원은 의장직 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C 110은 현재까지 216건의 디스플레이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14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주름 및 굴곡 측정방법', 'OLED 구부 휘도 및 균일성 측정방법' 표준화를 주도했으며, '물러블 디스플레이 변형 측정방법' 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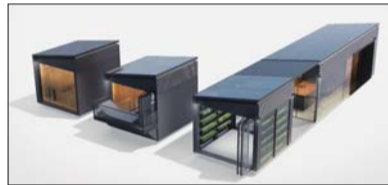
hys@metroseoul.co.kr



metro

삼성, '에디슨 어워즈' 금2·은2

스마트 모듈러하우스·비전AI 금상
비스포크AI콤보·3D사이니지 은상



'2026 에디슨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미래형 주택 디자인 프로젝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서 열린 '2026 에디슨 어워즈'에서 금상 2개, 은상 2개로 총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상업 기술·몰입과 상호작용 경험·라이프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디자인 등 총 14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 등에 금·은·동 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2개의 금상을 수상했으며, 은상도 2개 수상했다.

금상 수상작은 AI 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택 디자인 프로젝트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와 삼성 TV만의 통합 AI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이다.

은상 수상작은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스 사이니지'이다.

삼성전자의 AI 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택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 프로젝트인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는 소비자 솔루션 분야의 사람 중심 가정 솔루션 항목에서 금상을 받았다. TV를 시청 중인 사용자에게 AI 기술 기반으로 최적화된 답변과 정보 등 인사이트를 제공해, 즐겁고 편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은 라이프스타일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AI 기반 미디어 경험 항목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상미당홀딩스, 장애인 제빵 교육 진행

서울베이커리 근로자 20명 참여

상미당홀딩스가 행복재단과 함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사회복지법인 '애덕의 집'이 운영하는 '서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참가했다. 서울베이커리는 환경을 고려한 원료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하며 장애인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다.

이번 교육은 파리크라상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감뉘누(프랑스식 시골빵)와 저당 소스,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샌드위치 등 건강 베이커리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제과제빵 기술과 함께 최신 베이커리 트렌드를 반영한 레시피를 익히며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복재단과 서울베이커리가 함께 운영 중인 '행복한베이커리교실'의 일환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전자, 세계 곳곳서 친환경 캠페인

나무심기·폐가전 수거로 ESG 실천

LG전자가 세계 곳곳에서 나무심기,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을 찾아가 가족 동반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LG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속 실천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매년 본사 구성원들이 주도해 노을공원 나무심기를 이어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나무심기 활동을 펼친다. 사우디 도심 녹지화 프로젝트 '그린 리야드(Green Riyadh)'에 동참해 리야드 시내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외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도 병행한다.

스페인에서는 이베리아반도 산림 복원을 위한 '스마트 그린 트리' 캠페인을 2017년부터 매년 운영 중이다. 지역 토종 꿀벌 증식을 통해 식물 번식을 돕는 '스마트 그린 비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폐가전 수거를 통해 사



LG전자 구성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을 찾아가 자녀들과 함께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

/LG전자

원순환 활동도 이어간다. 이달에만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폴란드, 라트비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 10개국에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법인은 지난달부터 법인사옥에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법인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수거 활동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20일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와 지역별 전용 수거함을 활용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 포항·청주서 장애인 상생 활동

포항 배식 봉사·청주 체육 지원

에코프로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과 청주 지역에서 나눔과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에코프로는 17일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북부에서, 함께라면' 행사에 참여해 특식 배식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기부받은 라면을 장애인 봉사자들이 포항 내 장애인 단체와 아동복지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눔

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과 보호자, 지역 주민 400여 명에게 점심 특식을 제공했다. 같은 날 청주에서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에코프로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충북장애인체육회에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산하 장애인 스포츠단인 온누리스포츠팀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응원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행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자기부담금 처리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사고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제3자의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원고들(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보험자)와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제3자들)과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켰고,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 상당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이처럼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3자들의 보험회사들(피고들)을 상대로 위 자기부담금 중 과실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고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해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자대위권(상법 제 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자신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면서 "원고들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자대위권은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만큼을 대신해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자대위권의 취지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게 중복 청구해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보

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의 성격을 고려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고,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자대위권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험계약의 본질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게 중복 청구해 이득을 얻는 것은 손해보험의 원칙에 반한다. 반대로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정리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보장된 범위를 넘어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장애가 소음이 될 때, 인권은 죽어간다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새벽 1시 자폐 성향이 있는 21세 아들의 "돈카스가 먹고 싶다"는 말에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과 식당으로 향한 김창민 영화감독은 그 날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근 세간을 분노케 한 '영화감독 김창민 씨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내는 소리에 "조용히 시키라"며 시작된 시비는 6대 1의 집단 폭행으로 번졌고, 아버지는 끝내 뇌사 관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날 현장의 공권력은 무능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도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을 지키려 나이프를 들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방어기제를 보고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규정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해자의 폭행 횟수를 '20여 회'에서 '3회'로 축소 보고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폭력을 미화하는 합합 곡까지 발표했다.

뒤늦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과문을 읽으며 "유족의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못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밑바닥엔 장애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깔려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소음'으로 본 결과가 집단 폭행의 시작이었다. 비장애인의 소란에는 관대하면서 장애인의 행동에는 유

독 엄격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 빚어낸 참사다.

사법 시스템도 가해자의 편이었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쌍방' 프레임을 짜버렸고, 오히려 유족이 직접 CCTV를 뒤지며 증거를 모아야 했다. 수사기관의 안일함과 법원의 기계적 영장 기각이 결합될 때 법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가해자의 은신처가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김 감독은 생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만큼 인권에 각별했던 영화인이었다. 그런 그가 정작 가장 인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독한 역설이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처벌 결과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음 3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취** 4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60년생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72년생 유망한 업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  **소** 49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은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73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85년생 이성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  **호랑이** 50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이니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하세요. 62년생 종교가 있다면 지성으로 빌도록 하세요. 7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86년생 뜻밖의 귀인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  **토끼** 51년생 사사롭게 흐르지 아니하면 크게 쓰일 수 있습니다. 63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75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87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용** 5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64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매매가 있다면 길합니다. 88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쁜 일입니다.
-  **뱀** 53년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65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77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89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  **말** 54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6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하세요. 78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90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  **양** 55년생 가문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7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9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91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  **원숭이** 56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8년생 안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80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92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닭** 57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9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81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93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  **개** 58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0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습니다. 82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94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  **돼지** 59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95년생 동쪽부근에 가출한 친구가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슬픈 역사

한국 영화가에 천만을 넘는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가 있다. 잘 아시듯 '왕사남'이다. 조선의 슬픈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단종의 비극을 모티브로 하였다. 아주 예전에도 춘원 이광수는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그것이 '단종애사' (端宗哀史)다. 소설도 큰 히트를 쳤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지금 천만을 훌쩍 넘긴 왕사남은 단종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단종이 사사되고 그 주검을 모신 작은 관리 엄흥도와 단종의 짧은 날 동안의 궤적에 인간애적인 상상을 가미하여, 웃음과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입담처럼 익숙해진 말이 떠오르니 한 두 번쯤 들 어보셨을 것이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놀리는 이야기라 짐작하면서도 듣기 민망한 언사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도 단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잠시 나오지만, 세조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이기도 한 금성대군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노력이 밀고로 허사가 되면서 당시 경북 영주의 순흥부로 유배 오게 되는데, 유배를 와서도 순흥부 부사 이보흥과 뜻을 맞춰 또다시 단종의 복위운동을 계획한다. 이 역시 관노의 밀고로 허사가 되면서 금성대군은 사시를 당하고 순흥부는 역모의 땅으로 지정되면서 죄없는 백성들까지 모두 처형당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들만이라도 살리고자 순흥부 청다리 밑으로 아이들을 숨겼고, 버려진 아이 중 살아남은 애들을 불쌍히 여긴 관노들이 당시 한양으로 데려와 키웠다 한다. 이때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 눈물과 한이 스며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 누군가 탓할 것인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로 고난도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2			9
8					3	7		
6	7	1				4	8	

1	8	2	9	4	8	7	6	9
9	8	6	1	2	7	9	4	8
9	7	4	8	6	9	8	1	2
7	9	8	6	9	4	2	8	1
8	2	9	7	1	9	4	8	6
4	6	1	2	8	8	9	7	9
8	9	7	8	1	6	2	4	9
6	1	9	4	7	2	8	9	8
2	4	8	9	8	6	1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1 2017년3월09일 제20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의대 합격선 3년 만에 '최고치' 최상위 쏠림에 의대 문 좁아졌다

9개 의대 전년비 최대 0.43등급↑ 의대 모집인원 원복 영향 반영돼 2027학년도엔 지역의사제 '변수'

2026학년도 의대 내신 합격선이 2025학년도는 물론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도 일제히 상승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2026학년도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 등 9개 의대의 내신 합격점수는 전년 대비 최대 0.43등급, 2024학년도 대비 최대 0.63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이 가톨릭대, 울산대,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한림대, 을지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등 9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합격점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대학 모두 내신 합격점수가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보다 모두 상승했다.

2025학년도 대비 상승 폭은 을지대가 1.61등급에서 1.19등급으로 0.43등급 올라 가장 컸고, 이어 ▲한림대 1.70등급→1.32등급(0.37등급) ▲건양대 1.43등급→1.13등급(0.31등급) 순이었다.

	2025	2026	상승폭
을지대	1.61	1.19	0.42↑
한림대	1.70	1.32	0.38↑
건양대	1.43	1.13	0.30↑
경상국립대	1.37	1.11	0.26↑
경북대	1.51	1.35	0.16↑
가톨릭대	1.42	1.30	0.12↑
고신대	1.36	1.26	0.10↑
울산대	1.23	1.15	0.08↑
전남대	1.20	1.15	0.05↑

*합격점수 공개 9개 의대 자료/종로학원

2024학년도 대비로는 한림대가 1.96등급에서 1.32등급으로 0.63등급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울산대 1.46등급→1.15등급(0.31등급) ▲경북대 1.62등급→1.35등급(0.27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뒤 2026학년도에 정원이 다시 원복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동시에 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도 9개 대학 모두 합격점수가 상승한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이 더 집중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권 의대의 전국선발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비교하면 2026학년도에도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곳이 많았다.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은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반면,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변수로 꼽힌다. 종로학원은 현재 추세상 지방권 의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에는 전국선발 전형, 지역인재 선발 전형, 지역의사제선발 전형 순으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 집중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가 있어 다른 전형보다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서류와 면접 등의 영향이 큰 수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t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AI 등 '비전2030 펀드' 600억 출자

상반기 총 9350억 펀드 결성 추진 AI·창조산업·스케일업 등 4개 분야 스타트업 자금난 완화, 신산업 육성

서울시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투자시장 위축 속에서 초기 스타트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전 2030 펀드'에 상반기 600억원 출자약정에 나선다. 민간 투자 공백을 보완하고 AI·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AI일반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4개 분야에 60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총 935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서울시 출자금에 정부·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분야별 적재적소 투자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해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AI 분야 관련 특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일반 분야에도 150억원 출자약정을 진행함으로써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서비스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해나간다. 서울의 소프트웨어를 견인하고 있는 창조산업 분야에도 150억원을 출자 약정한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출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펀드 운용사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전략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든든한 조력자로서 서울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광주시, 강남 13분대 생활권 시대 연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승인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동남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데 대해 "강남권 13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승인된 구간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광주시 역동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구간 중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이다. 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

이 완료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 시간이 10~13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SRT와 GTX-A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경강선과의 연계 효과로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경제 거점 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시는 인접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원만한 조정을 추진하고, 국가 철도사업이 상생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광주시가 사통팔달 철도 중심 교통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미승인 구간도 조속히 정리돼 전 구간이 빠르게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지구의 날 맞아 서울 내 학교 10분간 소등

서울교육청, 22일 관내 학교 대상 기후위기 대응 등 프로그램 운영

오는 22일 서울 전 학교에서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올여름 역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구의 날 계기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도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이 담겨 있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제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구의 날 당일인 4월 22일 오후 8시에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등행사 참여를 독려한다. 이 행사는 10분간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학생,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 캠페인이다.

/이현진 기자

꽃으로 물드는 고양시... 24일 꽃박람회 개막

17일간 일산호수공원서 개최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1997년 첫 개최 이후 누적 관람객 900만 명을 돌파한 이 행사는 국내 대표 화훼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총 25만㎡ 규모 공간에 아와·실내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플라워마켓 등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단순 관람형을 넘어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확장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봄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야외 전시는 '시간'을 주제로 한 몰입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메인 공간

인 '시간여행자의 정원'에는 높이 13m, 폭 26m 규모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며, 회전하는 구형 꽃 구조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이와 함께 수상꽃자전거 체험, 지역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플라워마켓, 농특산물 판매장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람회장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GTX-A 킨텍스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와 임시주차장도 운영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4월 20일(월) 음력: 3월 4일

수도권 날씨 14~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18, 동두천 12/19, 가평 11/19, 파주 11/18, 서울 14/19, 양평 13/20, 인천 12/16, 수원 13/18, 용인 13/18, 평택 12/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이란과 협상 순조"…해협 봉쇄 시도에 "협박 안 통해"
▲베네수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건넨 걸 후회 안 해" /사진 뉴시스

▲이란IRGC,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 "미해군 해상봉쇄 끝나야 해제"
▲월드컵에서 하프타임 쇼를?...“상업적 흐름” vs “가치 훼손”

▲교황 "트럼프와 논쟁 관심 없어...평화 메시지 계속"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인간 세계 기록 경신



명품로고보다 자기만족 우선 유연한 소비 확산
니



Life

남매경영 끝낸 콜마그룹 바이오 강화 L2



“예측불허 유리에 온기 담아... 사라지지 않는 순간 선물”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리공예가 최재혁 작가

“유리는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어렵고, 그만큼 더 매력적인 재료다.”

최재혁 유리공예가 작가는 유리의 매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 작품의 형태를 그려두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는 이러한 ‘어긋남’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라고 여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작품만의 고유한 형태와 감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유리는 다루기 어려운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재료라는 설명이다.

최 작가는 “유리는 종종 말을 잘 듣지 않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뜨거운 유리를 불어 작품으로...대학 시절 시작된 꿈

유리 공방에서 만난 그는 설 틈 없이 손을 움직이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최 작가는 뜨거운 유리를 불어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 작업을 중심으로 유리공예를 이어가고 있다. 블로잉은 유리를 파이프 끝에 말아 숨을 불어넣고, 이를 회전시키고 늘리고 다듬으며 형태를 완성해 가는 방식이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유리라는 재료가 지닌 특성과 움직임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작가는 “블로잉은 유리의 물성과 움직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법”이라며 “유리가 부풀고 흐르고 늘어나는 순간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작업해야 하므로 재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가 유리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리공예 작업을 하던 선배를 알게 됐고 그 모습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작업의 본질로 마음 깊게 각인된 것이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공예를 시작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그는 “뜨거운 유리를 직접 다루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블로잉 작업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으나 뜨거운 유리를 익히고 길들이며 나만의 작업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일상의 감정에서 출발...유리로 완성되는 순간들

최 작가가 영감을 얻는 출발점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른 분위기다.

그는 “어떤 날의 기분이나 오래 기억에 머



최재혁 유리공예가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롤리팝 디저트 세트’.

최재혁 유리공예가가 뜨겁게 달궈진 유리를 블로잉 기법으로 성형하고 있는 모습. / 차현정 기자



예측할 수 없어 매력적인 재료 ‘유리’ 재료의 ‘어긋남’이 아름다움 만들어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에서 영감 얻어 숨 불어넣어 만드는 블로잉 기법 사용 철저한 온도관리, 동료와의 호흡 필수

사탕, 유리로 옹근 ‘롤리팝 디저트 세트’ 녹지 않는 사탕에 소중한 추억 담아 유리공예로 따뜻한 온기 전하고 싶어



최재혁 유리공예가가 달궈진 유리를 블로잉 기법으로 다듬으며 형태를 완성해가는 모습.

무는 장면, 혹은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쌓이면 이를 스케치로 옮기고 형태와 색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며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려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가 주로 하는 블로잉 작업은 다소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구상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유리가 녹아 있는 용해로와 형태를 다듬기 위해 다시 가열하는 글로리홀, 완성된 작품을 천천히 식히는 서냉로 등 여러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업을 돕는 어시스트와의 호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충분한 구상을 거친 뒤 작업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수다.

최 작가는 “실제 작업이 시작되면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이미지와 감각을 하나씩 형태로 풀어낸다”며 “이 과정은 막연한 감정을 눈앞의 사물로 완성해 나가는 일이자, 흠어진 조각을 맞춰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리공예 과정에서 최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온도 관리다. 온도에 따라 유리의 상태와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결과물에 그대로 드러나서다. 이와 함께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역시 기술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최 작가는 강조했다.

그는 “유리는 작업자의 상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재료”라며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날의 감정이나 집중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한다”며

“유리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재료를 다루는 일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리 공예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그는 대학 시절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때를 꼽았다. 블로잉 작업은 여러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았다는 설명이다.

최 작가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함께 웃고 버텨낸 시간 덕분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든 작업이 있기에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남았다”고 언급했다.

◆“사라지지 않는 순간 담고파”...기억을 붙잡는 작업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는 ‘롤리팝 디저트 세트’다. 사탕 특유의 진숙하고 밝은 이미지를 유리로 옮겨오면서 익숙한 오브제를 낯설고 오래 남는 형태로 재해석했다. 해당 작품은 최 작가가 주력하는 블로잉 기법으로 제작됐다.

그는 “유리를 불고, 늘리고, 당기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탕공예와 닮은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탕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 사라지지만 유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바로 그 차이에서 이 작업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달콤한 순간과 붙잡아둘 수 없는 기억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녹지 않는 사탕을 만들었다”며 “이 작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추억의 마음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감동을 남기며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유리공예를 통해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담아내고 일상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작가는 “내 작업에 담긴 마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로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유도 중량급 간판 김종훈, 아시아선수권 남자 90kg급 금메달
▲여자 아이스하키, 스페인에 4-1 대승...세계선수권 3부 잔류 확정 /사진 뉴스스

▲금호 SLM 이창욱,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구로문화재단, 5월 공연 ‘사운드트립’...배우 조한지·코걸리스트 정승원 출연

▲역경 속 피워낸 예술...실존 예술가 다룬 뮤지컬 잇따라
▲AI·서커스·제주 4.3까지...삼일로창고극장 ‘인큐베이팅 팩토리’ 내달 쇼케이스